

# 玉溪 盧禎의 시에 나타난 풍격 고찰

김 근 태 \*

## <目次>

- |                     |                      |
|---------------------|----------------------|
| I. 서론               | III. 온화하고 소탈한 平澹의 풍격 |
| II. 出仕의 번민과 歸去來의 바람 | IV. 결론               |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옥계 노진의 시에 드러난 풍격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옥계는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기에 조선시대 漢詩史에 있어 뚜렷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성리학자의 깊은 학식과 고결한 인품에서 나온 시들은 평이하면서도 담백하여 속세를 벗어난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의 풍격을 平澹으로 규정하였다.

옥계는 당대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깊은 학문적 지식을 축적하였고,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이기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고 급변하는 정계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직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학문을 연마하며 살기를 갈망하였으나 끝내 이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는 짧은 시간 이나마 지리산을 중심으로 여러 곳을 유람하며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재로 시를 지었다. 따라서 그의 문집에 남아 있는 시들은 고향이나 산수 전원에서 보고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읊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지은 시는 특별한 기교나 시적 장치도 없고 시어를 단련하거나

\* 강원대학교 강사 / neoktkim@naver.com

조탁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전고를 사용하지 않아 외형상으로는 평이하게 보인다. 또한 작자의 정서나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담백하다 못해 무미건조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그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시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 무한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게 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산수를 유람하며 지은 시에서는 유람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고 호연지기를 키우고자 하는 성리학자의 의식이 담겨 있고,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시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노진, 성리학자, 평담, 호연지기, 지리산

## I. 서론

玉溪 盧禎(1518~1578)은 조선조 사림파와 훈구파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던 명종과 선조 연간에 문신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경상도 함양에서 태어나 30여 년의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淸顯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외직에 나가서는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로 뽑히기도 하였다. 또한 노모를 봉양함에 있어 남다른 효심을 보이기도 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조선 정계에서 정국을 주도할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기고 있지 않으며 시문에 있어서도 남들과 다른 특징적인 면모가 강하지 않기에 그동안 정치사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옥계의 시문에 관한 연구물로는 석사논문<sup>1)</sup> 한 편과 소논문 한 편이 있으며<sup>2)</sup>, 옥계의 삶과 학문세계를 논한 해제 한 편과 소논문 한 편<sup>3)</sup>, 옥계의 정계활동을 연구한 논문<sup>4)</sup>, 옥계가 유람하였던 長水寺에 대

1) 이영숙, 「玉溪 盧禎 研究」,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 신태영, 「玉溪 盧禎 시의 미의식」, 『慶南文化研究』 30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9.

3) 최석기, 「『玉溪集』 解題」, 『南冥學研究』 12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2.; 「玉溪 盧禎의 志趣와 學術」, 『동양한문학회』 28집, 동양한문학회, 2009.

한 연구물<sup>5)</sup>이 한 편 보고되어 있다.

옥계도 다른 성리학자들과 같이 시문 창작을 즐기지 않아 남아 있는 작품이 많은 편은 아니다. 문집에 수록된 한시는 모두 224수인데 그 가운데 輓詩가 52수나 되며, 산문에서는 祭文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략한 저술 가운데 그의 문학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어떠한 언급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시세계의 일반적인 면모는 시세계를 연구한 두 명의 선행 연구자에 의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두 연구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옥계가 성리학자였다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한 면이 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옥계의 문학세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동시대 인물들의 언급을 단초로 하되, 그가 성리학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세계의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한국 문집총간』 37집에 수록된 판본이며, 번역은 풍천노씨문효공과종문회에서 출간한 국역본<sup>6)</sup>을 참고로 하되 몇 군데 수정을 가하였음을 밝힌다.

## II. 出仕의 번민과 歸去來의 바람

노진은 1518년 경상도 함양군 德谷 介坪村에서 盧友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노진의 자는 子膺, 호는 玉溪, 則庵, 養休堂 등을 사용하였으며, 본관은 豊川이다. 부친인 노우명은 일찍이 鄭汝昌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있다가 金安國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천거되어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또한 옥계는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일컬어지는 安處順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따라서 옥계는 중

4) 정재훈, 「玉溪 盧禎의 정치사회적 활동 -명종, 선조 연관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5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5) 이종목, 「尋眞洞 長水寺와 玉溪 盧禎」, 『南冥學研究』 26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6) 『(國譯) 玉溪先生文集』, 『(國譯) 玉溪先生續集』, 풍천노씨문효공과종문회, 2003.

중, 명종 연간 정계에서 활약한 사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여섯 살에 부친을 여의고 고향 근처에서 강학을 하던 처사 鄭希輔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다가 1537년 20살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유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학문에 매진하였다. 그는 성균관에서 金麟厚, 盧守愼, 洪仁佐, 奇大升, 李後白 등 당시 명성을 날리던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22세 때 문과 初試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였다가 會試에서 낙방하기도 하였는데, 28살이 되는 1545년 을사사화를 당해 지인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 과거 응시를 포기하였다가 이듬해인 1546년 매부인 태인현감 申潛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 을과로 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승진을 하며 내외직을 번갈아가면서 비교적 순탄한 관료생활을 이어가다가 40대 후반엔 고향에 머물며 秋潭에 초옥을 짓고 申義齋, 養休堂 등의 편액을 건 秋潭精舍에서 강학에 힘을 쓰며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때 曹植, 李滉 등과 망년지우로 교류하기도 하였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의 고위관직을 연이어 제수 받았지만 노모 봉양과 신병을 이유로 계속하여 사직소를 올려 실제로 내직에 부임한 적은 별로 없었다. 주로 외직을 청하여 전주부윤, 곤양군수, 경상도 관찰사 등에 부임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30여년에 걸친 관직생활 가운데 중앙에서 근무한 것은 3개월도 되지 않는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그의 전반적인 관직생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노진은 성품이 온화하고 장중하였으며 지조가 확고하여 간신들이 권병을 천단하던 때를 당하였지만 한 번도 행적에 물들지 않았고 벼슬살이도 청렴하고 근실하게 하였으므로 상이 특별히 포상을 내려 아름답게 여겼다. 그는 관리의 사무에도 정밀하고 민첩하였다. 金繼輝가 영남 지방을 안핵하면서 그가 행한 공적을 조사해 보고 감탄하기를 “덕행과 문학에다 관리의 사무까지 이처럼 통달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였다. 그 고을 사람들은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올렸으며, 뒤에 文孝란 시호를 내리니, 세상 사람들은 그가 시호를 받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7)</sup>

위의 인용문은 실록에 기록된 그의 줄기인데, 덕행과 학문, 관리로서의 역량까지 모두 뛰어나다고 사관은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옥계가 삼사와 판서로 근무할 때 국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옥계는 옥계가 명망은 있었지만 經世濟國할 재주와 포부가 부족하여 능히 時事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단지 自守할 뿐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sup>8)</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옥계는 조선 중기 사림의 일원으로서 큰 업적을 세울 인물로 지목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며 주로 외직에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다. 모친의 봉양이라는 목적이 강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을 목도하고 그러한 소용돌이에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은 그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매사에 신중한 성품에 더하여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나 산속에서 조용히 학문을 연마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경향이 강하기에 그는 지속적으로 사직소를 올리며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옥계가 “학문하는 것은 말이 많은 것에 있지 않으니, 大學의 첫 16자에서 구하면 충분하다.”<sup>9)</sup>라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자신의 수양만을 강조하지는 않았고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sup>10)</sup> 이러한 면은 “도를 배우고 인을 구함은 시대를 구하고자 함이니, 저절로 나머지 말들은 모두 별 볼 일 없다네.”<sup>11)</sup>라고 읊은 시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이 지니고 배워왔던 포부와 너무나 다른 현실 사이

7) 『宣祖修正實錄』, 11년 무인(1578, 만력 6).

8) 李珣, 『石潭日記』 상권, 1573년(선조 6) 10월.

9) 林薰, 『葛川先生文集』 卷2, 玉溪盧公行狀, “常曰 爲學不在多言 求之大學篇 初十六言足矣 半世功力 專在大學”

10)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행해야 함을 주장한 내용으로 「三無私賦」와 「均田議」라는 글을 들 수 있다.

11)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和魯卿詩」 中 1~2句, “學道求仁要濟時, 自餘論說摠支離”

에서 고민하던 옥계는 결국 관직을 떠나 낙향할 마음을 드러내었다.<sup>12)</sup> 그러나 그는 실제로 과감하게 결행하지는 못하였다.

陳情十四斬恩許 14번 진정표 올렸지만 은혜를 아끼시어  
 階秩居然到列卿 품계는 어느덧 열경의 지위에 이르렀네.  
 難進縱緣西日迫 비록 죽을 날이 코앞이라 나아가기 어렵다 했지만  
 匡時無策奈顏楨 세상을 바로잡을 계책이 없으니 얼굴 붉힘을 어이할거나.<sup>13)</sup>

위의 시는 사직소를 쓴 후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14번 사직소를 올렸다는 언급을 통해 옥계의 관직생활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으며, 본인을 아끼는 국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옥계의 고민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고흥을 이유로 사직소를 올리지만 사실은 관직을 맡을 역량이 부족해서라는 고백을 통해 옥계의 진솔한 마음도 아울러 읽을 수 있다.

督責疲氓豈所安 고달픈 백성들 채근하는 게 어찌 편안하겠는가  
 歸心日夜繞鄉山 밤낮없이 돌아가려는 마음 고향 산에 얽혀있다.  
 何時謝却銅符去 어느 때나 동부를 사양하고 떠나  
 階菊晴窓相對閑 섬돌 국화 맑은 창문으로 한가로이 대할는지.<sup>14)</sup>

3구에 보이는 銅符는 銅章이라고도 하는데 지방 수령이 차는 官印을 말한다. 그가 내직 뿐만 아니라 지방관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옥계가 속세와의 완전한 단절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위의 시에서도 나타나듯 관직을 그만두고 고

12) “인간세계 등지는 것은 비록 도리가 아니지만, 속세를 끊은 것은 도리어 사랑스럽네. [離人縱非道 還愛絕塵寰]”라고 읊기도 하였다.(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抵庵小憩口占」 中 尾聯.) 道가 아닌 줄 알면서도 非道의 생활이 부럽다고 한 것은 현실에 대한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3)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1, 「封疏章 仍吟一絕」.

14)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1, 「次姜仲輔翼韻」.

향으로 돌아가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롭게 사는 것을 옥계는 꿈꾸었다.

纔到招提骨已寒    절에 이르자마자 뼈마져 시러오는데  
 松間況是鶴來單    소나무 사이로 학 한 마리 날아오네.  
 仙居咫尺非難往    신선의 거처 지척이라 가기 어렵지 않지만  
 還念偷生詎自安    도리어 구차하게 살아남은 삶을 생각하니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는가.<sup>15)</sup>

위의 시는 「용성[남원]에서 郡治를 지나가다가 점필재의 「咸陽九絶」에 차운하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작품이다. 산속 깊은 곳이라 한기마저 느끼는 절간,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한 마리가 보인다. 뭔가 속세와는 다른 별천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신선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선에서 작자의 고민은 시작된다. 결국 작자는 마지막 구절에서 자신의 삶을 ‘偷生’이라 표현하여 신선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고백하였다. 옥계의 脫俗은 仙人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인 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옥계는 ‘儒仙’이라는 용어를 시 여러 곳에서 사용하였다. 俛仰亭 宋純을 儒仙이라 표현하기도 하였고<sup>16)</sup>, 學士樓에서 읊은 시에서도 누대에서 노닐던 이들을 儒仙이라 하였다<sup>17)</sup>. 옥계가 선비나 학자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一區山水足風煙    한 구역 산수 경치 즐기기에 족하니  
 籬落蕭條數頃田    망가진 울타리에 몇 이랑의 밭.  
 徭吏豈能驚吠犬    세금 걷는 아전이 어찌 개를 놀라서 짓게 할 수 있으랴  
 白雲深鎖四圍巖    흰 구름 깊이 덮혀 있고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sup>18)</sup>

15)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追次」.

16)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1, 「敬步俛仰亭韻」 中 尾聯, “此間合着儒仙住, 勝事他年入盡傳”.

17) 「學士樓近體」 2수에 모두 儒仙이란 용어가 보인다.

18)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三井洞 用佔畢齋韻」.

위의 시는 너무 외진 곳이라 아전들이 찾아와 채근되는 것도 불가능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고픈 옥계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옥계는 관직에 얽매인 삶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러한 삶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한평생 出仕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였고 마음속으로나마 관직을 떠나 고향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살아갈 것을 갈구한 것이다.

### Ⅲ. 온화하고 소탈한 平澹의 풍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옥계 자신은 문학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을 드러낸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당대인들의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옥계의 시풍에 대한 단초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문자 사이에 형체를 갖추어 자연스럽게 조리가 분명하고 빛이 휘황찬란하였고 흥취와 맛이 뛰어나고 오래 갔으며 음운이 화평하였다. 억지로 붓을 들고 먹을 놀려 새롭고 기이한 것을 쓰고자 힘쓴 자들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중략) 심지어 시나 편지와 같은 글이나 雜著에서조차 性情의 바름을 얻지 않은 것이 없었다.<sup>19)</sup>

문장을 지음에 걸음으로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아 典雅하고 瞻暢하였으며 濂洛의 문체를 깊이 체득하였다. 시에 있어서는 비록 쓰려고 하지 않았지만 가끔 지을 때는 흥취와 맛(趣味)이 悠遠하여 절대로 진부한 말을 답습하지 않았다.<sup>20)</sup>

19) 鄭蘊, 『玉溪先生文集』 卷1, 「玉溪先生文集序」, “故其發而形諸文字之間者 自然條理分明 輝光藹暢 趣味踔遠 音韻和平 有非操觚弄墨務爲新奇者之所能髣髴也 … 至於吟咏之詞 簡牘之言 雜著之說 無不得其性情之正”

20) 李廷龜, 『玉溪先生文集』 卷6, 「明朝鮮國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

문장을 지움에 애초에 지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응혼하고 정대한 기운이 발하여 전아하고 넉넉하고 화창한 아름다움이 드러났으니 화려하게 수식하거나 먹을 희롱하는 자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sup>21)</sup>

첫 번째 인용문은 옥계집의 서문을 지은 鄭蘊이 평한 말이며, 뒤의 두 인용문은 李廷龜가 옥계의 신도비명과 묘지명을 지으면서 각각 평한 말이다. 두 사람은 옥계가 한시에 있어서 性情之正을 얻었고 典雅하며, 趣味가 悠遠하여 진부한 말을 쓰지 않았고 참신함과 기이함을 추구하거나 화려한 수식에 힘쓴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하였다.

일찍이 시 짓기를 좋아하여 맑고 담백하고 격조와 힘이 있었다. 또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섞여진 당송의 시를 분별함에 백에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sup>22)</sup>

일찍이 시 짓기를 좋아하여 맑고 담백하여 속세의 기운이 없었다.<sup>23)</sup>

위의 인용문은 옥계가 직접 지은 부친의 행장과 묘지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옥계는 어려서 부친에게 학문과 시문을 배웠으며<sup>24)</sup> 전통시대에 家學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고려할 때 부친의 영향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인용한 것이다. 옥계는 먼저 부친의 시적 안목을

事藝文館提學贈諡文孝公玉溪盧先生神道碑銘, “爲文章 不事浮靡 典雅瞻暢 深得濂洛文體 於詩 雖不屑意 而往往趣味悠遠 絕不蹈襲陳言”

- 21) 李廷龜, 『玉溪先生文集』 卷6, 「明朝鮮故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事藝文館提學贈諡文孝公玉溪盧先生墓誌銘」, “爲文章 初不屑意 而其雄渾正大之氣 發爲典雅瞻暢之華 有非操觚弄墨者所可比擬 所著詩文若干卷行於世”
- 22)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3, 「考從仕郎 行顯慶參奉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府君行狀」, “早好爲詩 清澹有格力 又探泝源流 雜唐宋詩辨之 百不一失”
- 23)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3, 「有明朝鮮國從仕郎 行顯慶參奉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府君墓誌」, “早好爲詩 清澹無塵俗氣”
- 24) 임훈이 지은 옥계의 행장에 “신고공[옥계의 부친인 盧友明]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주자의 잠명을 손수 써서 그를 가르쳤다.[信古公奇愛之 手寫朱子箴銘以教之教之]”라는 구절이 보인다. (『玉溪先生文集』 卷6, 「行狀」.)

높게 평가하고 부친의 시를 俗氣를 전혀 느낄 수 없고 澹泊하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중기 한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옥계의 시를 평가한 인물들의 언급에서 참신함과 기이함을 추구하는 이들이란 江西詩風을 추구한 일련의 시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옥계는 조탁에 치중하여 인위적인 면이 강한 시풍을 배격하고 자연스러움을 중시하였으며<sup>25)</sup>, 俗氣를 배제한 맑은 느낌의 한시를 애호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한시를 본고에서는 ‘平澹’이라는 풍격용어로 규정하고자 한다.

司空圖는 二十四詩品에서 평담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풍격을 ‘沖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沖’은 ‘비어 있다는 뜻으로 욕심이 없는 평화로운 성질’을 가리킨다.<sup>26)</sup> 율곡은 『正言妙選』을 편찬하면서 ‘沖澹蕭散’을 최고의 경지로 설정하고 “性情의 바름을 근본으로 하고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고 자연스런 가운데 깊이 묘미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욕심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연스러움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평담과 충담은 매우 흡사한데 심지어 두 풍격은 같은 의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연구자도 있다.<sup>27)</sup> 그러나 속된 욕심을 비웠다는 면에서 두 용어는 같지만 ‘平’이라는 글자가 시인의 온화하고 화평한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충담 대신 평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풍격용어로서 충담 또는 평담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며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 25) 詩體에 있어서 강서시풍을 애호한 작가들의 공통점은 율시의 작법을 연마함에 치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강서시풍을 비판하고 당풍을 추구한 이들은 율시보다는 절구를 선호하였는데, 옥계도 輓詩와 月課로 지은 시를 제외하면 절구의 비율이 율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 26) 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p.67. 이하 二十四詩品에서 거론한 각 풍격의 내용과 특징은 이 책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 27) 이연세, 「漢詩批評에 있어서의 詩品 研究」, 인하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310.

1. 세속적 욕망과는 거리를 둔 은자의 삶을 표현한다.
2. 번잡하고 소란한 도회지를 멀리하고 고요하고 정적인 전원의 삶을 추구하고 묘사한다.
3. 흥분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다.
4.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조금 퇴영적인 삶의 자세를 보인다.
5. 염세적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낙관적이고 포용력 있는 여유로운 정서가 주도한다.
6. 화려한 수식이나 조탁보다는 자연스러움과 투박함을 추구한다.<sup>28)</sup>

또한 옥계의 시에는 涼月, 松月, 明月, 秋月 등 달이 주된 소재로 자주 등장하며, ‘淸’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人慾이 완전히 배제된 작자의 청정한 마음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옥계가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이황, 김인후, 조식 등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옥계의 시세계에 학자로서의 관념과 의지가 담겨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志業元非祿位規	뜻과 일은 원래 관직에 두지 않았으니
簡編要討古人遺	서적을 들추며 옛사람의 남긴 자취 탐토함이 중요하지.
相將日用勤提省	일상생활에서 서로 자신을 돌아봄에 힘써야 하니
肯向人間慳不知	세상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을 낼 필요 있겠는가. <sup>29)</sup>

擁衾欹枕聽鷄呼	이불 끌어안고 베개에 기대 닭울음소리 들으니
夜氣團團客念消	밤기운 은은하여 나그네 근심 사라진다.
深懼牛羊來我牧	소와 양이 내 목장으로 오는 것이 매우 두려우니
要將敬義待平朝	경과 의로써 순수한 아침을 기다림이 중요하지. <sup>30)</sup>

위에 인용한 두 편의 시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수양에 힘쓰겠다는 다

28) 안대회, 앞의 책, p.73.

29)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1, 「謹賡鄭魯卿希參韻」.

30)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次梁上舍涵」.

짐을 보이는 내용이다. 두 편 모두 朱子의 언급과, 『論語』, 『孟子』 등 경전에서 시어를 차용하여 本然之性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성리학자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드러내어 濂洛風的인 요소가 짙게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학자풍의 시는 옥계가 활동했던 시기에 하나의 흐름으로 등장하는데 안병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송시 특히 강서파의 시풍을 바탕으로 하는 훈구관료문인들의 시세계는 화미함과 더불어 지나친 시적 기교 및 수식을 존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괴한 용사, 희귀한 전고의 사용 등에 의한 난삽, 신기 그 자체를 추구하는 폐단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사림파에 의해 비판되고, 그들의 내면주의적 경향에 근거한 투명한 정신세계의 지향에 따른 청정한 시세계에 의해 극복되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심성수양을 내세워 다양한 인간정서의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삶의 풍부한 정서를 드러내는 데에는 결함을 지니게 되었다.<sup>31)</sup>

수식과 기교만 지나치게 강조하던 강서시풍은 조선중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등장한 사림파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림파들은 심성수양을 통한 청정한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내면주의적 경향이 강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sup>32)</sup> 옥계는 시의 창작에 대해 깊이 고민한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며 시를 즐겨 짓지도 않았다. 따라서 기존 시풍의 폐단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시풍의 시도를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성리학자였기에 그의 시에는 위의 언급에 부합되는 사림파의 시적 특징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33)</sup>

31)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15.

32)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에 나타난 미의식을 임형택 교수는 冲澹蕭散, 閑美清適, 清新灑落이라고 규정하였는데(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pp.44-48.) 이영숙은 앞의 논문에서 옥계의 시에는 이 3가지 미의식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였다.

33) 신태영은 앞의 논문에서 옥계의 한시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로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 전화되는 시기에 있어 한 국면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물론 회화성이 강하다는 점과 삼당파의 선배격인 이후백과 절친한 사이라는 점, 산수자연시가 많기에 ‘清’한 미감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풍이라고

그렇다면 학자로서 옥계가 쓴 시에 나타난 평담의 풍격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淸幽한 삶을 통한 自適의 형상화

옥계는 청렴하고 근면한 관직생활을 하였다고 사관이 평가하였듯이 한평생을 큰 욕심 없이 살다 간 인물이다. 또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고위 관직도 마다할 정도로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그는 번잡한 한양 보다는 한적한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며 살기를 꿈꾸었다. 내직에서 근무한 것이 30개월도 되지 않는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옥계는 인생의 대부분을 지방과 고향에서 지냈다. 이제 그가 이와 같이 淸幽한 삶을 살면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시로 표현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無端世事自紛更	무단한 세상일 절로 어지럽게 바뀌니
人却於斯偏有情	사람들은 도리어 여기에 치우친 마음 드는 법.
默坐書函天欲曙	서재에 조용히 앉아 있노라니 날이 밝아오려는 듯
喜聽村巷亂雞聲	마을에서 어지러이 울어대는 닭울음소리 기쁘게 듣는다. <sup>34)</sup>

1구에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뒤바뀌는 세상일은 옥계가 활동하던 시기의 정계의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옥계가 관직에 진출하였던 명종대에는 정치권력을 두고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과 반목, 거기에 외척까지 가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국은 혼란하였고, 사림파가 정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선조대에도 사림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 동서봉당의 조짐이 나타나 혼란하기는 매한가지였다.<sup>35)</sup>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들은 객관성을 잃고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온유돈후함을 추구하는 성리학자의 시풍이 더 강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4)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報應吉公」.

라 지나친 찬양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지나치게 됴을 2구에서 읊었다. 마지막에서 옥계는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는 대신 조용히 학문을 연마하며 날이 새면 읊어대는 닭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세상사를 관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時俗의 추이를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관조하며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옥계의 시에는 위정자나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이 단 한 편도 보이지 않는다. 위의 시처럼 사람들의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말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경우도 거의 찾을 수 없다.<sup>36)</sup> 따라서 시가 평담하다는 것은 야단스럽게 悲憤慷慨하거나 별스럽게 大聲歡呼하거나 하지 않고 모나지 않고 安穩하게 끌고 나가 차분하고 담담한 情調가 살려져 있는 것이라는<sup>37)</sup> 설명에 딱 들어맞음을 느낄 수 있다.

幽人坐澗石    시냇가 바위에 홀로 앉아서  
高嘯思悠哉    높게 휘파람 부니 생각은 한가롭구나.  
日落村墟暝    해가 지자 마을은 어둑어둑해지고  
小橋人往來    작은 다리엔 사람들이 오고 가네.<sup>38)</sup>

위의 시에서도 옥계는 자신을 幽人이라 표현하여 탈속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해가 지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특별한 주제의식을 찾기가 어

35) 명종대와 선조대의 정계상황과 옥계의 정치활동 양상은 정계훈의 앞의 논문에 자세하다.

36) 이러한 특징은 남의 죽음을 애도하는 輓詩에도 나타나 ‘端的典重’하다고 鄭蘊은 서문에서 평하였다.

37) 차주환, 『中國詩論』, 서울대출판부, 1989, p.154.

38)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1, 「坐柳樹下 吟得一絕」.

려울 정도로 밋밋함이 강하다. 사공도가 충담의 풍격을 설명하며 처음으로 거론한 “소박하게 살아가며 침묵을 지키나니, 오묘한 천기는 더욱 미묘하다.[素處以默 妙機其微]”에 들어맞는 시라고 할 수 있다.

孤村薄暮暝煙霏	외딴 마을 저물녘에 안개 질게 덮혔는데
春水池塘蒲意肥	봄물 가득한 연못에는 부들이 살찌 가네.
芳草羃青連小砌	섬돌까지 파랗게 향기로운 풀들이 자라나니
一春生意自怡怡	봄날의 생기로 마음 절로 기뻐지네. <sup>39)</sup>

위의 시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고즈넉한 외딴 마을에 봄날 가랑비 내린 후 보이는 풍광을 담담하게 읊은 시이다. 시어를 조탁하거나 특별한 전고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天地自然의 이치가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가랑비에 덮여 희미하게 보이는 외진 마을의 정적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강한데, 그 속에서도 쉬지 않고 때에 맞춰 변해가는 자연의 동적인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도 하다. 비 내린 뒤 봄날의 생기가 한층 더해지자 작자의 마음도 따라서 넉넉해지고 흥겨워진다고 하여 자연과 같이 순리를 따르고자 하는 작자의 조용하면서도 온화한 성품도 아울러 드러나 있다.

山中一夜成清晤	산속에서 하룻밤 맑은 대화 하다 보니
忘却吾猶簪組身	내가 관직에 매인 몸임을 잊어버렸다.
月印千岳群動息	달빛이 온 바위를 비추고 모든 움직임도 그쳤는데
坐來方寸澹生眞	앉아 있으니 마음속에 참됨이 맑게 생겨난다. <sup>40)</sup>

위의 시도 평담의 풍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마음이 맞는 벗과 자연 속에서 하룻밤 지내며 흥금을 털어놓다 보니 자신이 속세에 얽매인 신

39)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1, 「偶吟」.

40)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贈金伯類」.

분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게 될 정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흥취에 잠이 올 리 없는데, 주위 환경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다. 조금의 사사로움이 나 치우침도 없는 至公無私한 달빛아래서 참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마무리하였다. 어떠한 기교도 부리지 않았고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시키지도 않았지만 物我一體의 경지에서 무한한 여운과 흥취를 느낄 수 있다.

## 2. 산수기행을 통한 깨달음의 구현

『옥계집』에는 산수를 기행하며 쓴 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조신했던 성격답게 전국의 명승지를 찾아다니는 폭넓은 기행은 아니지만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들린 여러 곳을 소재로 쓴 시가 몇 편 있으며<sup>41)</sup>, 그의 고향인 지리산과 덕유산 근처의 자연경관 및 건물을 소재로 쓴 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자에게 무이산이, 퇴계에게 청량산이 있었듯이 옥계에게는 지리산이 심성을 수양하고 동시에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좋은 터전이었던 셈이다.

巖石環奇水勢雄	빙 둘러 있는 바위 기이하고 물도 힘차게 흐르니
從前觀覽擡無功	이전에 보았던 풍광은 모두 헛된 것이구나.
若將這樣留胸次	저 모양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다면
心眼恢恢天地中	천지간에 마음의 눈이 확 트이겠지. <sup>42)</sup>

위의 시는 전라도 남원에 있는 百丈寺라는 사찰에서 쓴 시이다. 남원은 옥계의 고향인 함양과 그리 멀지 않거니와 처의 고향이기도 한데, 옥

41) “급한 일정이라 비바람에 몸이 젖는 것도 잊은 건, 우리나라에서 이 곳과 견줄만한 풍경이 적기 때문이지.[巖程風雨忘沾濕 爲是東韓景少雙]”라고 읊기도 하였다.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雨中登清心樓 次鄭文忠公韻」 中 3~4句.)

42)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百丈寺溪邊 次金浣溪禧年韻」.

계가 남원부사에 제수되었다가 처의 고향이라 하여 사직하자 담양부사로 바꾸어 제수하기도 한 인연이 있다. 백장사 주위에 있는 기이한 바위와 거센 계곡물을 통해 시인은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捫葛攀藤入洞天    칙과 등나무 부여잡고 신선세계 들어서니  
 小庵高架白雲邊    작은 암자 흰 구름 가에 높다랗게 걸쳐 있다.  
 翛然丈室蒲團淨    날아갈 듯한 암자엔 포단이 정갈한데  
 手撫頭流最上巔    손으로 두류산 최고 높은 정상을 어루만져 보는 듯.<sup>43)</sup>

위의 시는 지리산을 유람하고 쓴 시로, 칙덩굴과 등나무 줄기를 겨우 잡고 올라가야 하는 지리산의 험준함을 말하고 지리산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암자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높은 곳이라 흰 구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암자, 암자에서 도를 닦는 스님은 시에 등장하지 않지만 정갈한 포단이라는 시어와 지리산 최정상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 듯하다는 표현에서 스님의 고결한 정신과 높은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곧 시인인 옥계의 정신이나 지향과 연결된다. 시인의 감정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풍경만을 평이하게 묘사하였지만 독자는 암자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오래도록 여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信宿洛江口    낙동강 어귀에서 이틀 밤 묵으며  
 維舟蘆葦叢    갈대숲에 배를 묶어 놓았다.  
 漁歌迷處所    어부들 노랫소리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고  
 煙雨政溟濛    안개와 비는 눈앞을 어둡고 흐리게 한다.  
 重席難防濕    겹으로 깔 자리로도 습기를 막기 어렵고  
 圍氈尙透風    털 이불 둘러싸도 바람이 들어온다.  
 平生江海想    평생 동안 강과 바다에 대해 상상했는데  
 此日興還窮    오늘은 흥이 도리어 다하였다.

43)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遊頭流 次梅村韻」.

又

江天夜雨霽 강가에 밤비 그치니  
 雲月蘸微明 구름 사이 달빛이 희미하게 밝아온다.  
 宿鷺驚寒渚 잠든 해오라기 차가운 물에 놀라 깨고  
 游鱗戲綠萍 헤엄치는 물고기 푸른 부평 희롱한다.  
 籌燈遙店小 산대로 만든 등불 저 멀리 주점에서 작게 빛나고  
 蘆荻遠洲平 갈대와 억새는 백사장에 아스라이 펼쳐있다.  
 夢罷孤舟裏 외로운 배 안에서 꿈을 깨니  
 塵緣覺已輕 속세의 인연 이미 가벼움을 깨닫노라.<sup>44)</sup>

위의 시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 먼저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작품은 낙동강 위 배안에서 잠을 자면서 보고 느낀 감정을 읊었는데, 습기와 추위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시인의 짜증 섞인 어조를 느낄 수 있다. 그렇기에 미련에서 강과 바다로의 유람에 대한 흥마저 사라졌다고 표현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앞의 작품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전개된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렵게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시인의 눈에 비친 강가의 풍광을 묘사하였는데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달빛 속에 노니는 물새와 물고기, 깜빡거리는 작은 등불과 넓게 펼쳐진 갈대와 억새는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아름답기만 하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이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되는 건 어디까지나 시인의 입장이다. 화창한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물은 항상 그대로이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당황한 시인의 눈에 그러한 자연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이치와 현상을 깨달았기에 미련에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였다.<sup>45)</sup> 즉 시인은 자연의 질서에 동

44) 盧禎, 『玉溪先生續集』 卷1, 「流下洛江 連日宿舟中 有作」.

45) 이영숙은 앞의 논문에서 첫 번째 작품은 현실, 두 번째 작품은 꿈속의 세계라 하였는데 동조하기 어렵다.

화되었고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마음과 흥취가 다시금 생겨나 속세의 인연이 이미 가벼움을 깨달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半月琳宮百念輕    절간에 비친 반달에 온갖 잡념 가벼워지는데  
 焚香兀坐對遺經    향 사르고 오롯이 앉아 경전을 대한다.  
 倦來時復憑窓看    싫증나면 다시 창가에 기대 바라보니  
 雨後山光晚更靑    비온 뒤 산 빛은 저물녘에 더욱 푸르러진다.<sup>46)</sup>

위의 작품은 절에서 경전을 공부하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현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절간이라 속세의 번잡함이 차단되어 있고 그러한 속에 있기에 속된 생각이 모두 사라진 청정한 상태에서 성현들의 글을 읽는 삶은 옥계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다. 그러다 따분해지면 창가에 기대 자연을 바라본다. 경전 읽기에 몰두하느라 비가 왔는지도 몰랐는데 때마침 비가 내린 뒤라 산빛은 더욱 푸르다고 하였다. 비온 뒤 맑게 갠 날씨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현실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나 마침내 정신적 자유를 찾은 작자의 마음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의 시는 특별한 주제의식 없이 어느 하루 일과를 범범히 그려내었는데 전체적으로 俗氣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야말로 산뜻한 淸澹함이 물씬 풍겨 나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옥계의 자연시(또는 기행시)는 자연의 풍광을 보고 그 속에서 삶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기도 하고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혼탁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안식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산수 기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심성을 수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리학자로서의 의식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盧禎, 『玉溪先生文集』 卷1, 「次鄭魯卿贈韻」 三首 中 第三首.

#### IV. 결론

지금까지 옥계의 시에 드러난 풍격을 살펴보았다. 옥계는 전문적인 시인이 아니기에 조선시대 漢詩史에 있어 뚜렷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성리학자의 깊은 학식과 고결한 인품에서 나온 시들은 평이하면서도 담백하여 속세를 벗어난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의 풍격을 平澹으로 규정하였다.

옥계는 당대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깊은 학문적 지식을 축적하였고,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이기에 내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고 급변하는 정계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학문을 연마하며 살기를 갈망하였으나 끝내 이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는 짧은 시간이나마 주위 여러 곳을 유람하며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재로 시를 지었다. 따라서 그의 문집에 남아 있는 시들은 고향이나 산수 전원에서 보고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읊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지은 시는 특별한 기교나 시적 장치도 없고 시어를 단련하거나 조탁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전고를 사용하지 않아 겉으로는 평이하게 보인다. 또한 작자의 정서나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담백하다 못해 무미건조하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독자들이 그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시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 무한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게 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산수를 유람하며 지은 시에서는 유람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고 호연지기를 키우고자 하는 성리학자의 의식이 담겨 있고,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시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宣祖修正實錄』

盧 禎, 『玉溪集』, 『韓國文集叢刊』 37, 한국고전번역원.

『(國譯) 玉溪先生文集』, 풍천노씨문효공파중문회, 2003.

『(國譯) 玉溪先生續集』, 풍천노씨문효공파중문회, 2003.

李 珥, 『石潭日記』(민족문화추진회, 1979년 국역본 『大東野乘』 IV.)

林 薰, 『葛川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8, 한국고전번역원.

신태영, 「玉溪 盧禎 시의 미의식」, 『慶南文化研究』 30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9.

안대회, 『궁극의 시학』, 문학동네, 2013.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이연세, 「漢詩批評에 있어서의 詩品 研究」, 인하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영숙, 「玉溪 盧禎 研究」,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종묵, 「尋眞洞 長水寺와 玉溪 盧禎」, 『南冥學研究』 26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정재훈, 「玉溪 盧禎의 정치사회적 활동 -명종, 선조 연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45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차주환, 『中國詩論』, 서울대출판부, 1989.

최석기, 「『玉溪集』 解題」, 『南冥學研究』 12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2.

——, 「玉溪 盧禎의 志趣와 學術」, 『동양한문학연구』 28집, 동양한문학회, 2009.

### Abstract

*A Study on the poetic themes and styles appeared  
in Okgye No-Jin's poetry / Kim Geun Tai\**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poetic themes and styles in the poems of Okgye No-Jin. Practically it's difficult to say Okgye has a definite status in the history of Sino-Korean Poetry, because he's not a professional poet. However the poems from one neo-confucianist's profound knowledge and noble personality are easy and plain, and show us his high spiritual world beyond mundanity. In this article, these poetic themes and styles are defined as Pyong-Dam(平澹): calm, lucid and pure.

Okgye had accumulated a deep academic knowledge while communicating with scholars of the day. Since his gentle and quiet character, he had been skeptical about the corrupt, rapidly changing political world which was too ambiguous to look ahead. For that reason he was eager to quit the government office, return home and lead a quiet life by practicing of his study. But it was never achieved. During just a short time staying home after withdraw from his office, it's possible to do sightseeing several places around Jirisan and writing poems about nature and the people lived in. Therefore it might say the remaining poems in his anthology recite honestly his feelings about hometown or landscape, and such poems are mainstream. Okgye No-Jin's poems seem to be plain because of no special skill, poetic devices, difficult allusion or polishing any poetic diction. In addition, the emotion and feelings of the author so rarely revealed, that could be considered his poems are even insipid rather than plain. But the more reader read those poems, the

---

\* Lecturer of Kangwon National Univ. / neoktkim@naver.com

more taste deep flavor contained in them unfolding in a very natural way, consequentially they worked very well to last infinite emotional resonance. Other poems written while excusing implicit the spirit of neo-confucianist: to cultivate one's mind and the vast flowing spirit[浩然之氣], and internalize his virtuous mental world.

【Key words】 No-Jin(盧禎), neo-confucianist[性理學者], Pyong-Dam; calm, lucid, and pure[平澹], the vast flowing spirit[浩然之氣], Jirisan(智異山)

투고일 : 10월 27일, 심사일 : 11월 22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